

재생에너지

그린산업/ESG 한병화
bhh1026@eugenefn.com

태양광 중심의 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 발표

업종투자 의견

OVERWEIGHT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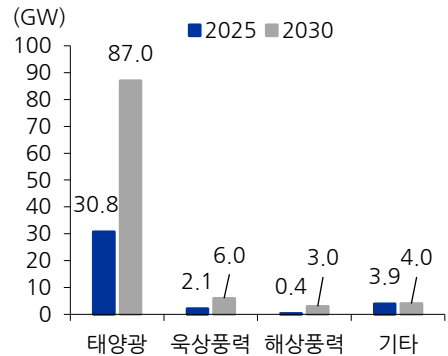
“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확보, 2035년 발전비중 30% 목표 확정
 정부는 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통해 2030년 태양광 87GW, 육상풍력 6GW, 해상풍력 3GW, 기타 재생에너지 4GW를 달성하고, 2035년에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% 이상(2025년 9.8%)으로 확보를 제시. 이번 계획은 재생에너지만 전담한 첫 발표이고,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수단들이 구체적이고, 지자체들의 자체 계획들까지 고려한 로드맵이어서 긍정적

“ 단기에는 태양광에 집중하고 중장기 보급 확대는 해상풍력 투 트랙으로
 2030년까지 원별 절대 물량은 2025년 30.8GW에서 2030년 87GW로 확대되는 태양광이 압도적. 태양광 보급 확대 전략은 1) 수도권 등 계통여유지역에 GW급 10개 프로젝트로 12GW 확보 2) 산단/공장/영농형/수상형 4대 입지 중심으로 44.2GW 추가하고 3) 태양광 주력 전원화를 위한 ESS 확대 등임. 해상풍력은 2030년까지는 누적으로 3GW 설치를 목표로 하지만, 그 이후부터는 연간 4GW 규모의 공급능력을 보유하도록 인프라를 확보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. 또한 육상풍력에 대한 각종 정부 지원을 통해 현재 100~300MW 수준의 시장을 2030년내에 1GW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목표 설정

“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한 정책, 태양광 전성 시대 심화
 글로벌 주요 기관들의 발전량 전망은 태양광 비중의 확대에 결론나고 있어. BNEF는 글로벌 태양광 발전비중이 2025년 9.14%에서 2030년 17.9%, 2035년 22.7%로 급상승할 것으로 전망. 2032년부터는 태양광이 최대의 발전원이 될 것으로 예상. 석탄 비중은 2025년 32.4%에서 2035년 17.3%로, 가스 발전은 21.8%에서 16.9%로 하락할 것으로 추정. 태양광의 연간 신규 설치량 순분은 500GW를 돌파한 상태. 대량생산 체제 확보로 원가 경쟁력이 가장 높은 상태에서 BESS 장착으로 간헐성의 단점도 극복되고 있어서 태양광 전성시대는 더욱 심화될 것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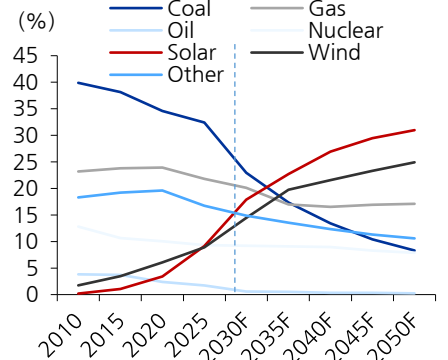
“ 태양광 밸류체인 성장 모멘텀 부각
 국내 태양광 제조업체들은 지난 3년간 국내 시장의 감소와 중국산 제품의 침투율 확대에 고전해옴. 하지만, 정부 정책이 태양광 위주의 단기 확대에 정해졌고, 국가입찰을 중심으로 국산 모듈과 셀 채택을 유도하는 방향이어서 업체들의 수혜 폭 클 것으로 판단. 지난주 한화솔루션의 남동발전에 대한 400MW 모듈 공급업체 선정은 좋은 사례. GW급 사업들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어서 제조업체들은 현재 5~6GW 수준의 설비를 증설하게 될 것으로 판단. 그동안 국내 시장의 부진으로 해외 시장에 주력하면서 태양광업체들의 실적 부침이 심했으나, 10GW 수준의 안정적인 시장이 확보되면서 업체들의 재평가 이루어질 것

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상의 원별 목표치



자료: 기후에너지환경부, 유진투자증권

2032년부터 태양광이 글로벌 최대 발전 비중



자료: BNEF, 유진투자증권

도표 1. 각 부처별 재생에너지 주요 추진 과제

주요 추진과제	부처명	비고
1) 수도권 등 계통여유지역 초대형 플래그쉽 단지 구축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수도권·충청·강원권 10대 太 프로젝트 12GW 발굴 - 계통 수용성·공공성 확보된 유휴부지 발굴 - 지역 특화 모델 도입 	기후부, 농식품부, 해수부 등	-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초대형 계획입지 발굴 추진단 구축·운영 - 중앙정부·지방정부·유관기관 추진단 구축 - 권역별 실무협의체 구성을 통한 추진전략 수립 	지방정부 공공기관	범정부 추진단 구성
2) 유휴부지 활용 4대 정책 입지에 태양광 집중 보급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4대 입지 중심 재생e +44.2GW 보급 - 산단·공장지붕, 영농형·수상형, 도로·철도·농수로, 생활공간(학교·전통시장·주차장), 기타 유휴공간 	기후부, 산업부, 농식품부, 국토부, 행안부, 교육부 등	산업집적법 개정, 농지법 및 영농형 태양광법 하위법령 제·개정 등 추진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규제 합리화·공공선도 재생e 확대 추진 - 이격거리 완화, 공공계획입지, 공공 K-RE100 	기후부, 재경부 등	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육상풍력 활성화 및 적기·조기 준공 지원 - 공공주도 계획입지 발굴, 인허가 신속 지원 	기후부, 국방부, 산림청, 기상청 등	범정부 보급 가속 TF 운영('25.12~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해상풍력 기반 구축 2035년 발전비중 30% 달성 - 해상풍력발전추진단 출범 및 해상풍력발전위원회 신설, 사업별 밀착 지원 통한 사업기간 단축, 계획입지 제도화 - 지원부두 확충, 전용선박 확대 	기후부, 해수부, 국방부, 산업부, 재경부, 기상청 등	해풍법 하위법령 제정 추진 WTIV 공공투자시 예타 면제 추진
3) 재생에너지 주력전원화를 위한 ESS 활용 확대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지속가능한 보급 확대 선순환 체계 구축 - 전력계통 혁신대책 수립, ESS 활용 등 분산형 전력망 전환 - 인허가 간소화·계통접속 지원 통한 리파워링 활성화 	기후부, 산림청 등	-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재생e 패키지(태양광+ESS+히트펌프 등) 사업 확산 - e 제로요금 마을, e 자립마을 전환, 자립형 분산특구 실증 확산 - 태양광-ESS-전기차충전기-히트펌프 연계모델 발굴 - V2G 도입 추진, 재생e+ESS 설치에 따른 지원우대 검토 	기후부, 행안부, 국토부 등	-

자료: 유진투자증권

Compliance Notice

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
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
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
 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
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
 동 자료는 당사의 제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
 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, 배포, 전송, 변형, 대여할 수 없습니다
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,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

투자기간 및 투자등급/투자의견 비율

종목추천 및 업종추천 투자기간: 12개월 (추천기준일 증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) 당사 투자의견 비율(%)

· STRONG BUY(매수)	추천기준일 증가대비 +50%이상	0%
· BUY(매수)	추천기준일 증가대비 +15%이상 ~ +50%미만	95%
· HOLD(중립)	추천기준일 증가대비 -10%이상 ~ +15%미만	5%
· REDUCE(매도)	추천기준일 증가대비 -10%미만	0%

(2026.3.31 기준)